

## 1119(토) 고린도전서 5-7장 누가 자유한 사람인가?

고린도교회에는 유력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산가, 식자층, 선택/결정권을 가진 자들로  
세상에 소개하고 어필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적이며 사상적으로 고양된 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는 자만에 빠져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무엇에도 얹매지 않고 자유한 사람이므로  
어떤 경계도 넘나들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댔습니다(5:2).  
그들은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율법적 굴레를 벗어나 율법의 근원이신 주께 속하는 삶,  
제한된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법에 속하는 삶,  
단호할 것은 단호하며, 선택할 것은 최선이도록  
성령에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조차 거리는 음행들을 벼젓이 행했고(5:1),  
성도 간의 고소/고발로 세상 법정을 찾았습니다(6:1,6).  
성령과 연합한 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서(6:17-20)  
하나님의 통치를 만방에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양,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는  
누룩을(옛 생활/이전 방식/불의)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미명 아래 도덕적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용서/사랑/관용의 이름아래 죄가 간과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결연히 대처해야 합니다(5:6-8,6:9-10/ 5:9-13).

영적인 깊이는 성령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지식/문화/사상/이목/압력/관례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모든 지혜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가장 적합한 것을 적법하게 얻도록  
적재/적소/적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까?

- ❶ 자유/용서/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간과하는 죄가 있습니까?
- ❷ 아직 제거하지 못한 누룩은 무엇입니까?